

임실N치즈축제 무료셔틀버스 확대

6일까지 2개 노선 3개 코스 20분 간격으로 운행 한옥마을 경유 밤 10시까지, 관광객 편의 극대화

임실군은 3일부터 6일까지 개최되는 2019 임실N치즈축제를 찾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무료셔틀버스를 대폭 확대, 운영한다.

군은 주말부터 시작하는 임실N치즈 축제에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 관광객 편의와 축제장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개 노선 3개 코스로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임실노선은 임실생활체육공원을 출발해 임실군청을 경유하여 임실치즈테마파크를 왕복하는 무료셔틀버스를 2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또한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치즈마을까지 왕복운행도 20분 간격으로 운영되며, 방문객 증가 시 군청에서 임실치즈테마파크, 갈마교차로에서 임실치즈테마파크까지 수시 운영하기로 했다. 전주노선은 전주종합경기장 동문입

구에서 출발하여 전주시청과 한옥마을(트윈호텔)을 경유하여 축제장을 왕복 운행하는 셔틀버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특히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전주를 연결하는 셔틀버스 운행으로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임실N치즈축제를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특히 축제를 뜨겁게 달아오르게 할 EDM 댄스파티인 아모르 파티 행사와 야간 빛축제를 보러온 야간 관광객들이 많을 것을 고려해 전주 방향으로 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밤 10시까지 운행한다.

임실N치즈축제에는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교통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지난 해 방문

객들이 겪는 교통문제를 크게 보완하여 셔틀버스 이용자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작년엔 16대에서 19대로 셔틀버스 차량 운행도 확대했다.

특히 전주권에서는 오는 관광객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셔틀버스를 수시로 운행하는 등 해소대책을 세웠다.

또한 군청 전직원이 교통요원으로 투입돼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 일원, 군청과 임실을 소재지 곳곳에 배치, 원활한 교통순환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심민 군수는 "해마다 기대 이상의 많은 방문객이 축제장에 오셔서 교통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올해는 이를 최대한 보완하는 대책을 세웠다"며 "축제장을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이 교통문제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셔틀버스 운영과 관련한 문의는 군청 교통행정팀(☎063-640-2573~5) 또는 임실N치즈축제 홈페이지(www.imsilfestival.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시설 가시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남원시가 국립공원인 지리산에 친환경 녹색교통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사업이 국토부 정책연구 종료와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 1일 시청 회의실에서 전북도, 남원시, 철도 및 예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용역기관은 법적 기준, 시설계획, 노선 및 정거장, 열차 운영, 배선 및 차량기지, 시스템 분야, 차량제작, 사업비 및 운영비 수요 추정 및 경제성 분석, 향후 추진 일정 등을 보고했다.

남원시는 지난 5월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용역 수행방향에 대한 설명과 남원시의회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7월에는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연구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남원시 사업 추진의지를 충분히 밝히고, 국토부는 전기열차 핵심기술에 대한 검증을 위한 완성차 제작과 시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험노선 건설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1일 보고회에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에서 개발 완료한 산악철도 핵심기술 검증을 위해 3량 1편성의 완성차 제작과 시험노선 R&D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경제성 분석을 위한 편익산정에 있어 추가편익으로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도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남은 용역기간 동안 보완해 금년 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이환주 남원시장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인 만큼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며, 현재 국토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전기열차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및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가 마무리되고 있어, 시에서는 시험노선 추진을 위한 국가 R&D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점차 사업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과 소충제전위원회는 지난 2일 '제63회 소충제례행사'를 성수면 소재 소충사에서 개최했다.

임실군, 제63회 소충제례행사 개최

이석용 의병장 및 28의사 추모

임실군(군수 심민)과 소충제전위원회(위원장 마형수)는 지난 2일 구한말 항일운동을 펼치다 순국한 정재 이석용 의병장과 28의사를 추모하고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제63회 소충제례행사'를 성수면 소재 소충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심민 임실군수와 신대용 임실군의회 의장, 이동민 임실경찰서장을 비롯한 각 기관단체장 및 유족과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본 행사는 추모공연을 시작으로, 제례행사, 유족 및 기관단체장 분향, 학생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소충제례행사는 1907년 일제에

의해 고종이 강제로 양위하고 군대가 해산되자 임실 등지에서 의병을 일으켜 투쟁 중 순국한 성수면 삼봉리 출신 이석용 의병장과 28의사의 넋을 위로하고 선열의 뜻을 기리기 위한 행사로 매년 10월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성수면 주민은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한 이석용 의병장과 28의사의 희생정신 및 나라사랑 정신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심민 군수는 "일제에 항거, 희생한 선열들의 업적을 기리고자 해마다 제례행사를 열고 있다"며, "임실에서 배출된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뜻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보훈의 확대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맞춤형 수출상담회 열려

순창군이 지난 2일 발효식품진흥원 회의실에서 지역 농특산물의 수출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수출활력 촉진단' 컨설팅을 개최했다.

이번 컨설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도, 순창군이 주최해 관내 수출을 하고 있거나 수출에 관심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기관 간 1:1 상담으로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전북코트리지원단,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주세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6개 수출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지역 10여개의 업체들이 컨설팅을 받았다.

장류와 발효의 고장 답게 대다수 발

효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거 참여해 대중무역과 수출국 다변화 등 수출 전략 등에 대한 상담이 진행됐다. 또 컨설팅을 주도한 수출유관기관은 개별기업에 대한 글로벌 발역량진단을 실시해 기업에 맞는 수출지원사업을 제안하는 등 컨설팅 참여기업에 대한 수출개선 전략이 이어졌다.

최근 발효 관련식품이 서울 시내 면세점에 입점하며,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에게 눈 도장을 찍고 있어 순창 고추장이나 소스, 발효커피 등에 관련 제품 수입상담이 이어져 관련 제품 생산업체들도 발빠르게 수출 대응전략을 펼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군, 1인 미디어 심화 교육

순창군이 1인 미디어 시대에 발 맞춰 심화교육을 진행해 홍보 전문가를 키운다. 군은 현재 SNS채널 운영중인 순창군민이나 기존 크리에이터 양성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오는 7일까지 방문접수를 통해 심화교육 희망자를 받는다.

접차 영상과 미디어를 활용한 영상 홍보방식이 기존 오프라인 방식의 홍보보다 효과가 높고보니 군도 1인 미디어 매체를 활용해 군정 홍보에 적극 활용할 방침을 세우고 이번 교육을 나섰다.

군은 지난날 3일 크리에이터 양성교육을 진행해 매주 화요일마다 5회 가량 교육을 진행해 지난 1일 마쳤다. 당초 크리에이터 양성교육도 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했으나 접수 당시 130명에 가까운 군민들이 교육을 접수할 만큼 미디어 교육에 군민들의 관심 또한 지대하다.

이에 군은 지난 기초교육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이번 심화교육을 준비해 미디어 교육에 대한 군민들의 갈증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 크리에이터 양성교육이 PPT를 활용한 이론교육에 그쳤다면, 이번 심화교육은 모든 영상장비를 갖추고 촬영부터 편집, 제작까지 전 과정으로 마스터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육도 프로그램과 영상장비를 갖춘 인근 도시 스튜디오내 진행돼 현장감이 있게 했다.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은 순창군청 문화관광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여야 하며, 신청자 중 채널운영, 영상실적, 기획력 등 총 5개 분야로 나눠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는 오는 10일 이뤄지며, 합격자는 11일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의회, 제2회 추경 예산 의결

남원시의회(의장 윤지홍)는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남원시의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8.25%가 증가한 8,551억원으로 65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618억원이 증액된 7994억원, 특별회계는 34억원이 증액된 557억원이다.

특히,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사업, 시민의 편익을 위한 생활형 SOC사업,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관광산업 육성 사업 등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었다.

박문화 예정위원장은 "이번 추경심사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어려운 지역경제에 힘을 보태기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